

창세기(1906/1911년)

-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민영진*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새찬송가 199장 3절 후반부-

들어가며

내가 한글을 익히면서 읽기 시작한 성경은 『개역』(1938/1956/1961년)이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첫 성경은 우리가 흔히 『구역(舊譯)』¹⁾이라고 일컫는 『성경전서』(1911년)였다. 이 성경은 내·외국 번역자들의 노고와 한국 교회의 격려와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세 성서공회의 협조로 태어났다. 아마 1911년의 『성경전서』를 지금 읽으라고 하면 오늘의 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말이 생경(生硬)하고 어려운 것도 문제려니와, 원문 반영 정도나 번역 방법 자체를 검토한다거나 우리말 문체나 구문을 비평적으로 고찰한다면 문제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구역』을 읽으며 신앙을 돈독하게 하였고,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후손들이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 대한성서공회 번역자문위원, 구약학

1) 『구역』은 1938년 『개역』이 생기고 나서 그것과 대조되는 1911년 판 『성경전서』를 부르는 이름일 뿐, 『구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번역은 없다. 여기에서는 다만 1900년 『신약전서』 이후 1911년 『구약전서』에 이르기까지의 옛 번역을 일컫는 편의상의 칭호일 뿐이다.

옛 번역을 다듬어 『성경개역』(1938년), 『개역』(1956/1961년)을 펴냈고, 이어서 『공동』(1977/1999년)과 『개역개정』(1998년) 『새번역』(1993/2004년) 등을 출간하였다. 벌써 오래전에 고문서(古文書) 보관서고(書庫)에 보관되었던 1906/1911년 『구역』, 『창세기』를 다시 꺼내어 살피는 감회는 자못 깊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도 새삼 궁금하고, 그 성경은 지금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다.

1911년은 우리말 완역 『성경전서』가 나온 해다. 1611년에 영어 흠정역(英語欽定譯, King James Version)이 나온 후 300년 후였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the United Bible Societies)는 2011년을 맞아 KJV 40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세계적으로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 성서공회는 우리말 성경 완역 100년을 감사하며 축하할 것이다. 아마도 1911년 『구약전서』의 『창세기』를 살피는 것도 그 축하 행사의 일환일 듯싶다.

서양 선교사들은 1900년대에 서구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영어 번역을 사용하여 번역에 착수했고, 번역에 참여하였던 조선의 선비들은 중국교회가 읽던 한문 성경을 참고하였다.²⁾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번역 전승이 우리말 『구역』 번역에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추측이다. 여기에서 시도하는 창세기 고찰은 1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한 세기 전의 첫 창세기 번역을 살피는 것이다. 어휘나 문체나 우리말 문법과 구문 등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다루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룰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서지(書誌) 사항을 정리하고, 편집의 면모를 기술하고, 번역 역사를 살피면서,³⁾

2) 이러한 사정은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번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7 이하를 참고할 수 있음.

3) 대한성서공회 성서학문헌정보자료실 귀중 도서 서고를 왕래하면서 1900년 『신약전서』, 1904년 『신약전서』, 1906년 『신약전서』, 1906년 『창세기』, 1911년 『성경전서』 일, 이, 삼, 스 권을 볼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주요 서지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주임 사서 이은숙 씨와 우리말 초창기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히브리어 본문의 삭제(削除)와 번역자의 첨가(添加)와 번역자에게 기인된 본문 변경(變更)의 예들을 지적하고, 기독교 전래 초창기에 번역된 창세기 번역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과 어느 정도의 친소(親疎) 관계를 번역 성격과 관련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영어 번역들, 때로는 현대의 영·독·불 번역들과 『구역』 창세기를 부단히 비교할 것이다.

1. 서지 사항

1.1. 『창세기』(한국성서위원회/조선/경성대영성서공회, 1906/1908년)

1911년에 출간된 『구약전서』 상권에 들어 있는 『창세기』는 이미 1906년에 한국성서위원회(The Bible Committee of Korea) 발행, 일본 요코하마(橫濱) 복음인쇄소(福音印刷所) 출판으로 낱권이 출판된 바 있다. 같은 책이 1908년에는 발행자를 “대영성서공회”로 하여 거듭 인쇄되었다. 가로 13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인 책의 크기와 151쪽의 쪽수까지, 매 쪽 종서(縱書)의 행(行)과 각행의 글자 수까지 1906년 판과 1908년 판은 똑같다(사진 참조). 바로 이 창세기가 1911년 판 『구약전서』에 들어 있는 『창세기』이다.

1906년 판 『창세기』를 살펴보면,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겉표지 왼쪽 상단에는 세로 글씨로 『창세기』라는 책 이름이 네모꼴 안에 적혀 있다. 겉표지를 열면 아무것도 안 적힌 여백의 면지(面紙)가 나오고, 한 장을 넘기면 표제지(表題紙)가 나온다.

표제지는 한 쪽, 세 칼럼으로 되어있다. 오른쪽 칼럼에는 “구쥬 강성 일천구백륙 년”이라는 발행 연도가 적혀 있고, 가운데 칼럼에는 『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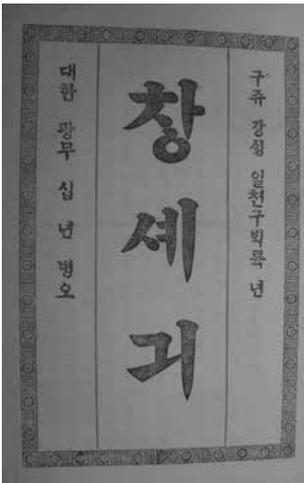
번역 역사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준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전무용 부장에게 감사한다.

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고, 왼쪽 칼럼에는 다시 “대한 광무 십 년 병오”라고 하는 발행 연도가 다년호(大年號)로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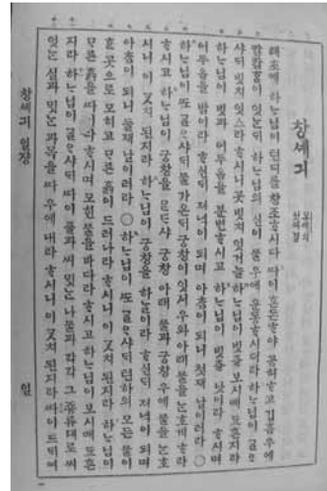
표제지를 넘기면 뒤쪽에 영어 간기(刊記)가 나온다. “GENESIS IN KOREAN”이라고 하는 책 이름과 1906년이라고 하는 출판 연도가 나오 고, 맨 밑에 “PRINTED FOR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By the Fukuin Printing Co., LTD., Yokohama, Japan”이라고 하여, 발행자 와 인쇄소가 밝혀져 있다. “한국어 창세기 1906년 초판, 한국성서위원 회의 요청으로 일본 요코하마복음인쇄소(橫濱福音印刷所)에서 인쇄” 한 것이다.

이 『창세기』가 『구약전서』(1911년) 안에 편집되면서 바뀐 것은 창 세기의 독자적인 표지와 표제지가 『구약전서』의 표지와 표제지로 대치 되면서, 낱권 『창세기』의 이름이 『구약 전서 목록』에 편입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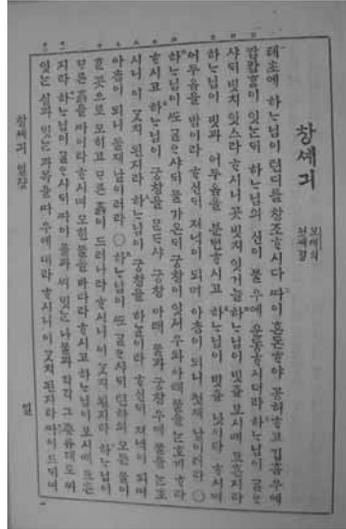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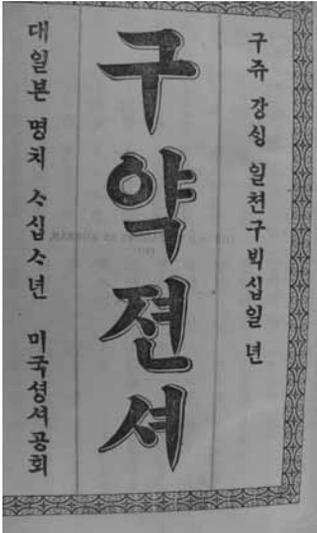
<그림 1> 1906년 『창세기』 표제지



<그림 2> 1906년 『창세기』 본문 첫 쪽 창세기 1:1-11절



<그림 3> 1911년 『구약전서』 표제지 <그림 4> 1911년 『구약전서』 창세기 1장 1-11절



1.2. 『구약전서』(조선/경성대영성서공회, 1911년)

영국성서공회, 스코틀랜드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이 세 성서공회가 합작하여 완성한 한국어 구약전서는 종이의 무게와 두께, 큰 활자 사용 때문에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구약전서 데이권』은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1,350쪽이며, 창세기는 151쪽이다. 『구약전서 데이권』은 에스라부터 말나기까지 1,351쪽부터 2,650쪽까지다.⁴⁾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책의 표지를 열면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4) 『구약전서』(조선/경성대영성서공회, 1911)와 『신약전서』(미국성서공회, 1911)가 『경성전서일, 이, 삼, 스권』(미국성서공회, 1911)으로 합쳐질 때 구약은 일권(창세기-역대하), 이권(에스라-아가), 삼권(이사야-말나기)으로 나뉘고, 마지막 스권은 『신약전서』로 출간되었다. 구약은 1권이 1-1,350쪽, 2권이 1,351-1,936쪽, 3권이 1,937-2,650쪽, 4권 신약은 1-774쪽이다. 판의 크기는 가로 13센티미터, 세로 18.5센티미터이다. 책 이름은 등 표지에 적혀 있다.

여백의 면지(面紙)가 나오고, 한 장을 넘기면 표제지가 나온다. 표제지는 한 쪽, 세 칼럼으로 되어 있다. 오른쪽 칼럼에는 “구주 강성 일천구백 십일 년”이라는 발행 연도가 적혀 있고, 가운데 칼럼에는 “구약전서”라는 책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고, 왼쪽 칼럼에는 “대일본 명치 스십스년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발간”이라고 하는 발행자와 발행 연도가 다년호(大年號)로 적혀 있다.⁵⁾

표제지를 넘기면 뒤쪽에 영어 간기(刊記)가 나온다. “THE OLD TESTAMENT IN KOREAN”이라고 하는 책 이름과 1911년이라고 하는 출판 연도가 나오고, 맨 밑에 발행자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밝혀져 있다. 인쇄소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다.

권말간기(卷末刊記)를 살펴보면, 발행인은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를 대표하는 “英國人 閔休”⁶⁾와 조선/경성 미국성서공회를 대표하는 “美國人 房居”⁷⁾로 되어 있고, 발행소는 “京城鐘路美國聖書公會”로 되어 있다. 인쇄는 일본 요코하마의 “福音印刷合資會社”다.

1911년 판 『구약전서』에 들어 있는 39권의 낱권들 중에서 『창세기』(1906, 1908년), 『시편』(1906, 1908년), 『사무엘전』(1907년), 『사무엘후』(1907년), 『출애굽기』(1907, 1908년), 『렐왕기상·하』(1908년), 『이사야』(1908년) 등은 이미 낱권으로 출판되어 보급되고 있었으며, 1911년 판에 편입될 때는 판형까지 그대로 실렸다.

5)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우리말 성경 표제지에 게재되는 출판 연도를 밝히는 다년호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새삼 일깨운다.

6) 민휴(Hugh Miller, 閔休, 1872-1956년)는 1901년 9월, 29세의 나이로 부총무로 출발하여 1905년 한국 지부 2대 총무가 되어 37년간 총무직을 맡았다. 1937년 8월 정년 은퇴. 1956년 84세 사망, 그의 성서 사업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407-417 참조.

7) 번커(D. A. Bunker, 1932년)는 1882-1894년 육영 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재직, 1890년 6월 기독교사회 창립, 1902-1911년 배재학당장, 주 한국 미국성서공회 대표로 활동.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275 이하.

1.3. 『창세기』 번역자들

필자의 지식이 가닿는 한 최초의 우리말 창세기 번역은 한국에 와 있던 당시 대영국종교성교회(大英國宗古聖敎會)라고 불리던 성공회(聖公會)가 한문 번역을 대본(對本)으로 하여 번역한 『舊約撮要(구약촬요)』의 창세기 발췌 번역(拔萃翻譯)일 것이다.⁸⁾ 1899년에 출판된 것이다. 발췌 번역과 요약 번역은 성격이 다르다. 요약 번역은 말 그대로 내용을 요약하여 번역하는 것인데 반하여, 발췌 번역이란 본문을 음성 음성 발췌하여 본문 자체를 요약하지 않고 다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촬요』의 창세기 번역에는 발췌 본문을 연결하는 교량(橋梁) 구실을 하는 본문에서 요약 번역이 더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번역이 성서공회나 번역자회의와 관련하여 처음 시작된 것은 1897년 초였다.⁹⁾ 이 무렵 「조선크리스도인회보」를 발행하던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亞扁薛羅, 1858-1902년)¹⁰⁾가 『사무엘』과 『열왕기』 사역(私譯)을 이 정기 간행물에 연재하였다.¹¹⁾ 1899년 2월에 번역자 회의가 정식으로 구약 번역을 시작하였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초역을 맡은 이가 아펜젤러였다. 상임성서실행위원회 1899년 2월 회의록¹²⁾을 보면, 1900년 2월에 아펜젤러가 창세기 초역을 마친 것으로 적혀 있다. 초역은 이렇게 마쳤지만 번역을 검토하고 본문을 결정하는 독회(讀會)는 시간이 걸렸다. 1902년

8) 『舊約撮要(구약촬요)』(1899)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민영진, “성공회신학대학에서 발견된 『구약촬요』,” 「성서한국」 36:2 (1990), 15-19.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한 것으로는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구약촬요』,” 「기독교 사상」 385 (1991), 157-166.

9)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 71.

10)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178, 266-267.

11) 민영진, “『개역』 사무엘 상하의 원 역본: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무엘 상하의 MT 반영 정도 및 1, 2차 개정 본문과의 비교,” 「신학과 세계」 14 (1987), 5-42.

12) *The Minutes of 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of Korea* (Feb. 16, 1899).

에는 창세기 초역자 아펜젤러의 순직(殉職)으로 창세기 완역이 더 늦어졌다. 호리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1859-1916년)¹³⁾를 중심으로 1905년 2월까지 독회를 거친 창세기 번역 본문은 31장까지였다.¹⁴⁾ 언더우드의 건강 악화로 창세기 초역의 나머지 부분은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 1863-1937년)¹⁵⁾과 레널즈(William David Reynolds, 李訥瑞, 1867-1951년)¹⁶⁾ 중심의 한국성서위원회(The Bible Committee of Korea)가 맡아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판 준비가 된 것은 1905년 말이었다.¹⁷⁾

1.4. 편집 특징(1906/1911년)

1) 본문(本文)

매 쪽마다 네모꼴 상자에 들어 있다.

2) 네모꼴 상자 밖으로는 위쪽에 한문 숫자의 장(章) 표시와 절(節) 안내 표시, 오른쪽과 왼쪽 여백에는 해당 쪽에 들어 있는 본문의 책 이름과 한글 장 표시와 쪽 수 표시, 하단 여백 좌우 구석에는 한문 숫자로 쪽 수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3) 책 이름

『창세기』, 부제(副題)로 “모세의/첫재경”이 첫 쪽 네모꼴 상자 안에 큰 글씨로 적혀 있다.

4) 장(章) 표시

한문 숫자로 표기. 장 시작 첫 절 위 난상(欄上)에 표시하였다.

13)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178 이하.

14) *The Minutes of 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of Korea* (Feb. 16, 1900).

15) 게일에 대해서는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195 이하;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 141 전후 참조.

16) 레널즈에 대해서는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221 이하;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 26 이하 참조.

17)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 73.

5) 절(節) 표시

한문 숫자 일(一), 이(二), 삼(三)…절 시작 첫 글자 오른쪽 어깨에, 그리고 절이 시작되는 세로 행 머리 쪽으로, 그러나 본문을 둘러싼 네모꼴 바깥 난상(欄上)에 절 표시 안내가 있다.

6) 띄어쓰기 법칙 적용

1 태초에 하나님이 텅디를 창조하시다 2 사이 혼돈하야 공허하고
깊흠 우에 캄캄함이 잇는디 하나님의 신이 물 우에 운동하시더라(창
1:1-2)

7) 아래 ㄴ(·) 사용

하나님이 굴으샤디 밋치 잇스라하시니 곳 밋치 잇거늘(창 1:3).....하
나님이 굴으샤디 사이 풀과 씨 밋는 나물과 각각 그 종류대로 씨 잇
는 실과 밋는 과목을 싸 우에 내라 하시니 이긋치 된지라(창 1:11)

8) 새 문단(文段)에 각설표(却說表)[○] 표시

1장에서만 하더라도 1, 6, 9, 14, 20, 24절 등이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다. 문단 시작에는 각설표를 주었다.

5 하나님이 빗칠 낮이라 하시며 어둠을 밤이라 하시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재 날이러라 ○ 6 하나님이 쏘 굴으샤디 물 가운데 궁
창이 잇서 우와 아래 물을 눈호게 흐라 하시고 7 하나님이 쏘 굴으샤
디....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러라(창 1:5-8)

9) 사람 이름에는 외줄(_)을 그어서 표시하였다.

아담, 해와, 가인, 아벨 등.

10) 장소 이름에는 겹줄(一)을 그어 사람 이름과 구별했다.

에던, 비손, 하월나, 히데겔, 앗수르 등.

11) 음역(音譯)한 말에는 물결줄(~ ~ ~)

거룹

드디어 그 사람을 쫓차내샤 에던 동산 동편에 거룹들과 스사로 도
는 불꽃 검을 두어 심명 나무의 길을 직회계 하시니라(창 3:24)

두딤

14 밀 추수 썩에 르우벤이 밧헤 갔다가 두딤 나물을 엇어 어미 레
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닐으디 네 아들의 두딤로 내게 좀
주라 흐거늘 15 굴으디 네가 내 남편을 썩아슨 거시 엇지 적은 일이
냐 이제 내 아들의 두딤도 썩앗고져 흐느냐 라헬이 굴으디 네 아들의
두딤를 인흐야 오늘 밤에 남편이 너와 동침흐리라 흐더라(창 30:14-1
5)¹⁸⁾

12) 시(詩)를 산문(散文)과 구별하여 편집할 때 시 부분 머리 위로
글자 두 개 정도 칸을 비워서 시각적으로도 그것이 시임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창세기 4:23b-24, 창세기 9:25-27, 창세기
25:23b, 창세기 27:27b-29, 39b-40, 창세기 49:2-27이 있다.

2. 번역 특징

2.1. 대명사/대명사 기능어를 실명사로 번역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어에서 대명사 활용이 꼭 제한적이라는

18) “두딤”은 히브리어 ‘두다임’(dû|dā’îm)의 단수 형태를 음역한 것이다.

점이 그 주요 이유였을 것 같다. 대상이 하나님일 때도 인칭 대명사 사용을 피한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은지라
여호와께서 이 거술 의로 녀이시고(창 15:6)

히브리어 본문대로라면 다음과 같다.

그가 여호와를 믿은지라
그가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wəheʾēmīn byhwh(bəʾdōnāy)
wayyaḥšəbēhā llô ṣəḏāqāh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다 “그”로 언급된다. 앞의 “그”는 아브람이고, 뒤의 “그”는 여호와다. 『구역』 창세기의 번역은 한편으로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로 나오는 하나님을 대명사로 번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대신에 각각 실명사를 밝혀서 번역하고 있다. 창세기 15:13,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낚으샤되”에서도 “여호와”는 “그”를 대치한 것이다.

혼돈을 피하려고, 또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대명사를 피하고 실명사를 쓴 예는 이 밖에도 많다. 다음 예에서 밑줄 친 실명사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대명사적 기능을 가진 말이다.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 수풀을 심고(창 21:33)
wayyittaʿ ʾéšel bibʾēr šāḇaʿ

야곱이 모든 맛난 일노 라반의게 고흐니(창 29:13)
wayəsappēr ləlāḇān ʾēt kol-haddəḇārīm hāʾēlleh

야곱이 ...다시 칠년을 라반의게 일하더라(창 29:30b)

wayya‘ābōd šimmô ‘ōd šəḇa‘-šānīm ’āḥērôt

존대법과 관련하여 하나님에게 “너”나 “당신”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쥬(主)”를 쓴 경우도 본다.

하가가 지시하시는 여호와와 일흠을 불너 고평되

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

이는 나를 감찰하시는자를 내가 우러러 보았다 흠이라(창 16:13)

히브리어 ‘아타 엘-로이’(attāh ’ēl rō’i)는 “당신은 감찰하시는 하나님”(You are El-roi)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번역자는 “당신” 대신 “쥬(主)”를 사용하고 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일컬어 “그”라고 하는 대신에 “쥬인(主人)”이라고 하는 것 역시 존대를 고려하는 번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히브리어 이탈이다.

집 사름을 불너 고평되

보라 쥬인이 다려온 히브리 사름이

여기서 나를 희롱하더니

맞춤 와서 나로 더브리 동침하교져하거늘

내가 큰 소리를 질으니(창 39:14)

히브리어 ‘헤비’(hēbî)는 “그가 데려왔다”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아내가 남편을 일컬을 때 “그” 대신 “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한다.

야곱이 유다를 압서 보내어

요셉의게 나아가 고센으로 인도하라 하고

더희가 고센으로 니르니(창 46:28)

wəʔet-yəhūdāḥ šālāḥ ləpānāyw
ʔel-yôṣēp ləhôrôt ləpānāyw gôšnāḥ
wayyābōʔū ʔaršāḥ gôšen

히브리어 본문은 “그가 유다를 압서 보내어”이다. 번역자는 동사 ‘살락흐’(šālāḥ) 안에 의미상으로 들어 있는 대명사적 기능을 가진 “그” 대신에 실명사 “야곱”을 번역에 반영한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 무릅 압혀서 쓰을어내고
즈기가 싸에 업티엿다가(창 48:12)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요셉이 “두 아들”이 아닌 “그들을” 자기 아버지에게서 끌어낸다(wayyôṣēʔ yôṣēp ʔōtām). 여기에서도 역시 대명사 사용을 제한하는 번역자가 한국어 번역에서 대명사 사용을 기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셉의 형이 그 압헤 가서 업티여 고클으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창 50:18)

히브리어 ‘에하브’(ʔehāyw)는 “그의 형제들”이다. 번역자는 “그의”를 “요셉의”로 바꾸면서 대명사적 용법 활용을 번역에서 피한다.

2.2. 히브리어 본문의 생략

번역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과 대조해 볼 때 히브리어 본문의 반영 정도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는 번역자의 첨가보다는 히브리어 본문의 생략이 많다. 후대에 이어지는 개정 과정에서 모든 히브리어적 요소를 다 반영시키려고 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정보를 첨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문

에 반영시킬 때 생기는 잉여 표현의 과잉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번역 본문에서는 첨가된 요소보다 삭제된 요소가 더 많다. 이것은 번역의 정확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번역 방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⁹⁾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 밑줄 친 부분은 번역에서 생략되었다. 번역문에 []를 치고 그 안에 생략된 말을 번역해 넣어 본다.

14 wattiqrāʾ ləʾansê bêtāh wattōʾmer lāhem lēʾmōr
raʾû hēbîʾ lānû ʾiš ʾibrî ləšáheq bānû bāʾ ʾēlay
liškab ʾimmî wāʾeqrāʾ baqôl gādôl

lāhem lēʾmōr “그들에게 이르기를”

hēbîʾ lānû ʾiš “그가 우리에게 데리고 온 사람”

ləšáheq bānû “우리를 희롱하려고”가 “나를 희롱하려고”로 바뀌었다.

집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일러] 콜으되
보라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다려온 히브리 사람이
여기서 나를 희롱하더니
맛춤 와서 나로 더브러 동침하고자하거늘
내가 큰 소리를 질으니(창 39:14)

다음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밑줄 친 부분이 번역에서 생략되었다. 번역문에 []를 치고 그 안에 생략된 말을 번역해 넣어 본다.

19) 이런 문제는 번역과 관련하여 마당을 달리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첨가, 삭제, 변경은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209-254를 보라.

wəʔet-yəhūdā^h šālah ləpānāyw
 ʔel-yôsēp ləhōrōt ləpānāyw gōšnā^h
 wayyābōʔū ʔaršā^h gōšen(창 46:28)

야곱이 유다를 압서 보내어
 요셉에게 나아가 고센으로 [압서] 인도하라 하고
 너희가 고센으로 니르니(창 46:28)

2.3. 우리말의 첨가²⁰⁾

우리말 첨가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 22:17b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네 즉손이 받드시
 그 원슈의 성을 엿을 거시오(창 22:17b)

여기 “받드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대응 표현은 없다. 히브리어 동사의 강조형도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첨가는 창세기 번역자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번역자의 대본(對本, Vorlage)으로 사용된, 화합본에 반영된 기존 번역의 반영일 수도 있다.²¹⁾

2.4. 히브리어 본문의 변경

14 wattiqrāʔ ləʔansē bêtāh wattōʔmer lāhem lēʔmōr
 rəʔū hēbīʔ lānū ʔiš ʕibrī ləšaheq bānū bāʔ ʔelay

20) 극히 제한되어 있다. 첨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창세기』 번역자에게 기인된 것이라기보다 그가 사용한 한문본에 기인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창세기 22:17, “네 즉손이 받드시 그 원슈의 성을 엿을 거시오.” 이 글 해당 구절의 설명을 볼 것.

21) “2.6. 헤브라이즘의 처리”에서 더 상세한 설명과 화합본(和合本) 번역을 인용하고 설명하였음.

liškab ‘immî wā’eqrā’ bəqôl gādôl

lašáheq bānû는 “우리를 희롱하다”로 번역해야 하지만 이것이 “나를 희롱하다”로 바뀌었다.

집 사름을 불너 [그들에게 일러] 글으되
보라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다려온 히브리 사름이
여기서 나를 희롱하더니
맛춤 와서 나로 더브러 동침하고저하거늘
내가 큰 소리를 질으니(창 39:14)

2.5. 외전된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자의적 조정

창세기 4:6-8을 뽑아 한 경우만 예로 들기로 한다.

6 여호와께서 가인의게 낚으샤되 네가 속이 툼은 엇짐이며 얼굴이 변홀은 엇짐이나 7 만약 네가 선을 행하면 것거히 드림을 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열이 문에 업드렛느니라 8 더의 소원이 네게 잇고 너는 더를 주관하리라 하시니 8 가인이 아오 아벨의게 그 말을 하였더니 후에 두 사름이 맞헤 잇슬 썩에 가인이 니러나 아오 아벨을 쳐 죽이거늘(창 4:6-8, 특히 8절)

6-7절은 여호와께서 가인을 꾸짖는 내용이다. 8절은 내용으로 볼 때 6-7절과는 무관하게 새로 시작되는 문단이다. 『새번역』, NEB, ESV, TEV(GNB) 등 다수의 역본을 보면 8절은 새 문단의 시작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 8절은 문장 구성 요소에 결함이 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였다(wayyô’mer qáyin ’el-hébel ’āhîw)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이 없다. 구문상의 결함이다. 그런데 구역 『창세기』는 “가인이 아오 아벨의게 그 말을 하였더니”라고 하여 마치 가인이 여호와께 꾸중을 받은 말(6-7절)을 자기 아우 아벨에게 말한

것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비평에서는 이미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 그리스어 칠십인역(Septuagint), 시리아어 역 페시타(Peshitta), 라틴어 역 불가타(Vulgate) 등과 같은 고대 역과 MT를 비교하여, 히브리어 본문에서 탈락된 본문 “들로 나가자”(nēlélākāh haśśādeh)를 회복한 것에서 밝힌 것에서²²⁾,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상의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2.6. 헤브라이즘의 처리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hebraism)이 기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의역되어 있다. 원문이 아닌, 한문 번역이나 영어 번역 참고를 한 번 거치면서 번역 어투는 이미 한 번 걸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17이다.

창세기 22:17(MT)

kî-bārēk ʾābāreḳḳā wəharbāh ʾarbeh ʾeṭ-zarʿākā
 kəḳōḳbē haśśāmāyim wəḳaḥōl ʾāšer ʿal-śəpāt hayyām
wəyīraš zarʿākā ʾeṭ śāʿar ʾōybāyw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어
네 족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 가에 모래 같치
 (내가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창 22:17)

네 족손이 반드시
 그 원슈의 설을 엿을 거시오(창 22:17b)

22) *Biblia Hebraica Kittel*, GEN 4:8 critical apparatus

정형 동사(定形動詞, the finite verbal form) 앞에 오는 독립 부정사(獨立不定詞, the infinitive absolute) 사용이 본 동사의 뜻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특수 표현을 문자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미를 살려 번역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심지어 히브리어 본문이 그런 강조법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에서 구역이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를 첨가하여 본 동사를 강조한다.

네 자손이 반드시
그 원수의 성을 엿을 거시오(창 22:17b)

이것은 우리말 번역자들은 이미 한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論福，我必賜大福給你，論子孫，我必叫你的子孫多起來，如東天上的星，海邊的沙，你子孫必得着仇敵的城門。(和合本，創 22:17)

한문 번역에 “복을 준다”는 동사를 강조하는 “반드시”가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의 강조법을 살린 것이다. 그러나 “자손을 많이 일으킨다”는 동사 구문에는 히브리어 강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도 한문 번역은 “반드시[必]”라는 부사를 반복한다. 다음에 나오는 동사 “네 자손이 반드시[必]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여 역시 다시 한번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를 삽입시키고 있다.²³⁾

23) 화합본(和合本, Union Version) 자체는 신약이 1906년, 구약이 1919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1911년에 나온 『구약전서』가 번역 대본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화합본이라는 것이 새로운 한 번역이 아니고 19세기부터 나온 기존의 여러 심문리(深文理), 천문리(淺文理), 관화체(官話體) 번역들을 통칭하는 말이므로, 현재의 화합본에 반영된 옛 한문 번역들을 우리말 구약 번역자들은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히브리어 ‘자르아카’(zar‘ākā, “네 씨”)를 “네 씨”로 번역하지 않고 “네 즈손”이라고 번역한 것, ‘샤아르’(šā‘ar)를 “문(門)”이라고 하지 않고,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함의(含意)를 따라서 “성(城)”이라고 번역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직 KJV를 위시한 여러 번역들이 다 축자 역을 보일 때였다.

thy seed shall possess the gate of his enemies(KJV, Gn 22:17b)

히브리어 ‘제라’(zer‘ā)는 “(식물의) 씨”(seed for planting), “(짐승의) 새끼”를 뜻한다. 우리말 “씨”와 용법이 같다. 문맥에 따라서는 “후손(descendants)”을 뜻하기도 한다. 구약 창세기는 사람을 말할 때는 으레 “즈손”으로 번역한다. 아직 KJV가 히브리어의 문장 구문과 문법 형식을 문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That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and in multiplying I will multiply thy seed
as the stars of the heaven,
and as the sand which is upon the sea shore
and thy seed shall possess the gate of his enemies

(KJV, Gn 22:17)

3. 번역에 반영된 주석

한 히브리어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창세기』 번역자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창세기를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사용한 대본(對本)에 반영된 히브리어의 의미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추려본다.

3.1. “창(窓)”과 “지붕”

우으로브터 일척 즘 느려 창을 내고
방주 고태로 문을 내어
상중하 삼층을 논호라(창 6:16)

“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초하르’(šôhar)는 “지붕”이나 “채광 시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우리말 성서 번역의 역사에서도 이 낱말은 두 가지로 번역된다. 『창세기』(1906년), 『개역』(1961년), 『개역개정』(1998년) 등은 “창”으로, 『공동』(1977년), 『표준』(1993년), 『새번역』(2004년) 등은 “지붕”을 택하고 있다. 가까운 외국어 번역을 보면, 의미와 표현이 더 세분된다. 채광(採光) 시설을 말하는 “빛받이”의 뜻으로, “창문”으로, 또는 “지붕”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a light”(ASV, DBY, ERV, JPS), “an opening for daylight”(CJB, NAB, TNK), “a window”(KJV, NAU, NKJ, YTL), “a roof”(CEV, CSB, ESV, NET, NIB, NIV, NJB, NRS, RSV, TEV), “Fenster(창)”(L45, LUO), “ein Dach(지붕)”(EIN), “toit(지붕)”(BFC, BFJ, TOB).

3.2. “동방으로”와 “동방에서”

더희가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신아 싸 평디를 만나 거기 거흐니라(창 11:2)

“동방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케뎀’(miqqédem)은 “동방에서부터”로 번역할 수도 있다. 여러 번역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방으로”(창세기, 개역, 개역개정) “동쪽에서”(공동, 표준, 새번역). “from the east”(CJB, CSB, DBY, ESV, KJV, NRS, RSV, TNK), “east/eastward/to the east”(ASV, ERV, JPS, NAV²⁴), NAS, NAU, NET, NIV, NJB, NLT), “de l’est(동쪽으로, east)”(BFC), “vers l’orient(동

쪽으로, eastward, to the east)”(TOB), “à l'orient(동쪽에서부터, from the east)”(FBJ).

3.3. “사닥다리”와 “층계

꿈을 꾸매 흔 사닥다리가 짜에 서서 그 꼭닥이는 하늘에 맞는디
하느님의 스자가 그 우에 오르락 느리락하는지라(창 28:12)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술람’(sullām)은 “사닥다리”나 “층계/계단”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말 최초의 창세기 완역본은 여기에서 “사닥다리”라는 의미를 취했다.

이 전통은 그대로 『개역』, 『개역개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 『표준』, 『새번역』에서는 ‘술람’의 우리말 대응어가 “층계”로 되어 있다. 영·독·불 번역들 역시 두 전통을 반영한다. “a ladder”(ASV, CJB, DBY, ERV, ESV, KJV, NJB, NRS, YTL), “a stairway”(NAB, NET, NIV, NLT, TNK), “échelle(ladder, 사닥다리)”(BFC, FBJ, TOB).

3.4. “사닥다리 위에 서서”와 “야곱 곁에 서서”

13 여호와가 그 우에 서서 끓으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오 이삭의 하느님
이라
너 누은 짜를 너와 밧 네 즈손의게 주리니(창 28:13)

“그 우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라브’(‘ālāyw)는 “그것 위에 (above it)” 즉, “그 사닥다리 위에”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의 곁에

24) while men were migrating in the east

(beside him)” 즉, (여호와께서) “야곱 곁에 스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영·독·불 번역에서도 이런 이해의 차이가 번역에 반영되어 있다. “above it”(ASV, DBY, ERV, ESV, KJV, NAS, NET²⁵), NIV, NLT²⁶), RSV, YLT), “next to him/beside him”(CJB, JPS, NAB, NJB, NRS, TNK), “devant lui(그것 위에)”(BFC, FBJ), “près de lui(그의 곁에)”(TOB).

3.5. “땅/세겜”과 “뭍”

이전에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색아슨 짜를 내가 네게 주어
너로 헝여곰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잇게 헝옛느니라(창 48:22)

이스라엘(곧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한 말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지금의 『개역개정』에서 같은 본문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개역, 창 48: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개정, 창 48:22)

히브리어 본문과 문자대로 옮긴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5) at its top

26) at the top of the stairway

waʔānī nāʔattī ləkā
 šəkem ʔaḥaḍ ʿal-ʔaḥēykā
 ʔāšer lāqāḥtī miyyad ḥāʔēmōrī
 bəḥarbī ūḇəqaštī(창 48:22)

나는 네게 네 형제(에게 주는 것)보다
 세겜 땅 하나를 더 준다
 세겜은 내가 갈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히브리어 ‘세겜’(šəkem)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하나는 “산자락”(mountain slope), “어깨(shoulder)”, “부분/몫(portion)” 등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를 일컫는 고유 명사 “세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한 몫”을 더 주었거나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산자락” 하나를 더 주었거나 “세겜 땅”을 주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야곱이 구입한 것으로 진술되기도 하고(창 33:18-19),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으로도 기록되기도 한다(창 34:21-29). 실제로 요셉은 세겜에 묻힌다(수 24:32). 이러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는 요셉이 바로 세겜 땅을 받은 것을 다른 형제에 비해 한 몫을 더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역』은 “세겜”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개역개정』은 다시 “세겜”을 언급한다.

3.6. ‘아드 키야보 실로’[ʿad kī-yāḇōʔ (šīlōḥ) (šīlō)]

창세기 49:10의 히브리어 ‘아드 키야보 실로’[ʿad kī-yāḇōʔ (šīlōḥ) (šīlō)]에서 히브리어 ‘실로’(šīlōḥ)가 문제다. 다섯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1) “실로가 오시기까지”(ASV, DBY, ERV, KJV, NAS, 구역, 개역, 개역개정), 2) “그(혹은 그의) 통치자가 (다스림을 받을 백성에게) 오실 때까지”(CJB, NET, NIV, NLT, RSV, 공동, 새번역), 3) “공물(貢物)이

그에게 이르기까지”/“나라들이 그에게 공물을 바칠 때까지”(ESV, NEB, NAB, NRS, NJB, TNK), 4) “사람들이 실로로 오기까지”(JPS), 5) “그가 실로에 오시기까지.”²⁷⁾

『구역』, 『개역』, 『개역개정』이 줄곧 같은 이해를 이어오고 있다.

홀이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안코
법관의 집행이가 그 발스이에 떠나지 아니흐리니
이는 실노가 오시기식지라
만인이 실노를 복종하리로다(구역,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개역, 창 49: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개역개정, 창 49:10)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공역, 창 49:10)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새번역, 창 49:10)

27) 가능한 번역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번역한 역본은 찾기 어렵다.

맺는말

번역 환경이 열악(劣惡)했을 것이다. 외국인 선교사 번역자들은 우리말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말 번역 동역자들은 한문 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말 자체의 표준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겪는 번역 실무자들의 고충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신약을 번역한 경험이 있었기에 구약 번역은 어느 정도 수월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받으면서도 1911년에 우리말 번역이 완역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다. 서구와 기독교 역사를 비교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일천하지만 『성경전서』는 KJV에 비해 겨우 300년밖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말 『창세기』와 히브리어 창세기 마소라 본문을 비교하면서 번역의 성격을 살필 때 놀라웠던 것은 기원전 3세기에 이루어진 그리스어 칠십인역 창세기의 그리스어가 구문에 있어서 그리스어라기보다는 히브리어의 어순까지 그대로 따르는 부자연스러운 그리스어임에 반하여 『구약』 창세기에서는 그런 무리함을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 1611년 KJV가 헤브라이즘을 그대로 영어에 재생시켜 의미 전달을 못한 것에 비하면 헤브라이즘의 형식이 아닌 의미를 전달한 『구약』 창세기의 번역은 의미 전달에서 우수한 편이다.

번역만 하기에다 벅찬데, 본문의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밝혀주는 난외주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창세기의 경우는 술하게 나오는 히브리어 어희(語戲), 기원학(起源學)이나 원인론(原因論, etiology), 어원학(語源學, etymology) 등과 관련된 배경 설명이 있어야만 본문의 의미와 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많으며 생소한 어휘 설명도 바람직한데 이런 것은 『개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미 1899년의 『구약 활요』의 창세기 번역에 할주(割註)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피할 일만은 아니었다.

창세기 번역자들에게 본문비평(本文批評)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 세기 전에 본문비평은 아직 생소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 비평적 편집이 나온 것이 1937년이였다. 그러나 『구역』의 구약을 보면 심각한 MT 이탈이 군데군데 보인다. 이것은 『구역』 구약의 대본의 본문 전승에 관한 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²⁸⁾

나오며

번역자의 서문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후대의 저서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 주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의 학문과 지혜는 찬양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의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물지 말고 쌓은 지식을 말로나 글로 나타내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조부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였다. 그분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다른 저서들을 열심히 공부하여 통달한 후 그 자신도 교훈과 지혜를 담은 책을 저술하기로 하였다. 그 목적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아울러 익혀서 율법대로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것에 흥미를 가지고 주의 깊게 읽어 주기를 바라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의 번역이 혹 잘못되었으면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원래 히브리어로 표현된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놓으면, 그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수가 많다. 이것은 비단 이 책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와 그 외의 다른 저서들, 심지어는 율법서마저도 그 번역서와 원서와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집회서 번역자 서문- 『공동』-

28)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21-22 『구역』은 MT 반영이 아니다.

한 번역자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당신의 말씀 번역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씀 훼손할 수도 있기에 무지와 무능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번역해도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은 우리 작업의 결함을 하나님보다 앞서 잘도 지적합니다. 지적받은 것 그대로 다 반영하여 한 번역이 완벽해진다면 그런 경사(慶事)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는 그렇게 할수록 당신의 몸은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 번역하는 일에 당신의 용서와 이해가 있기에 우리의 수고를 이쯤에서 그치고 잠정 최종판 만들어 이 말씀 인쇄하고 제본하여 보급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번역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번역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역자의 기도.²⁹⁾

<주요어>

구약전서, 구약 활요, 번역 특징, 변경, 삭제, 서지사항, 성경전서, 주석, 창세기(1906), 첨가, 칠십인역, 킹제임스 역, 편집 특징, 헤브라이즘

<Key Words>

The Old Testament in Korean(1911), Old Testament Selection, translation techniques, alterations, subtractions, bibliographic informatio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exegesis, Genesis(1906), additions, LXX, KJV, editorial characteristics, Hebraism

* 접수일 2010년 3월 12일, 수정일 2010년 3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0년 4월 5일

29) 민영진, “한 번역자의 기도,” 『기독교문학』 (서울: 한국 기독교시인협회, 2008), 67-68

참고문헌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민영진, “성공회신학대학에서 발견된 『구약촬요』,” 「성서한국」 36:2 (1990), 15-19.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구약촬요』,” 「기독교사상」 385 (1991), 157-166.
 민영진, “『개역』 사무엘 상하의 원 역본: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무엘 상하의 MT 반영 정도 및 1, 2차 개정 본문과의 비교,” 「신학과 세계」 14 (1987), 5-42.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1997.
 『구약전서 데이권』,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구약전서 데일권』,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56/1961.
 『성경전서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2004.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일,이,삼,스권』, 미국성서공회, 1911.
 『신약전서』, 미국성서공회, 1911.
The Minutes of 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of Korea (Feb. 16, 1899).

약어

-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
- BFC French Bible <<en français courant>>(1997)
- BHK Biblia Hebraica Kittel(1937)
- CJB Complete Jewish Bible(1998)
- CSV Holman Christian Standard Version(1999)
- DBY The Darby Bible(1884/1890)
- EIN Einheitsübersetzung(1980)

ERV English Revised Version(1885)
ESV English Standard Version(2001)
FBJ French Bible de Jérusalem(1973)
JPS JPS Holy Scriptures(1917)
KJV Authorized Version (1769 Blayney Edition of 1611 King James Version)
L45 Luther 1545 German Bible
LUO Luther Bibel(1912)
NAB New American Bible(1991/1970)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1977/1995)
NET New English Translation/The NET Bible Version 1.0(2004/2005)
NIV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1973/1984)
NJB New Jerusalem Bible(1985)
NJB New Jerusalem Bible(1985)
NKJ The New King James Version(1982)
NLT New Living Translation(2004)
NR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1989)
RSV Revised Standard Version(1952/1971)
TNK JPS TANAKH(1985)
TOB French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1988)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1862/1898)

<초록>

창세기(1906/1911년)

-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민영진

(대한성서공회 번역자문위원)

한국어 완역 『구약전서』(1911년)에 실린 창세기는 1906년에 낱권으로 출판되었다. 한국성서위원회 번역 창세기 이전에 성공회에서 한문역 『舊約撮要』에서 창세기를 발췌 번역하여 한문·한글 대조의 『舊約撮要』(1899년)를 펴낸 적이 있다. 완역 창세기로는 1906/1911년의 창세기가 한국 최초의 창세기 번역이다.

먼저 서지 사항을 살폈고, 편집 특징도 함께 고찰하였다. 장·절 구분, 장·절의 숫자 표시, 인명에 외줄, 지명에 겹줄, 음역된 낱말에 물결줄로 표시하여 구별한 것, 문단을 나눈 것 등은 한 세기 전의 경전 출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현대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다. 페이지 분량을 고려하여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분책하여 편집한 것은 아직 성경 종이 희귀했던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 후 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되어 구약의 경우 분권 편집 문제는 해결되었다.

번역 특징은 무리한 축자 역을 피하고 한국어 표현을 따라 주어의 생략, 소유격 접미어의 생략(省略) 등의 현상이 보이고 반대로, 대명사 사용이 제한되어 대명사를 실명사로 바꾸어 번역한 첨가(添加)의 예가 자주 보인다. 극히 드문 현상이지만 본문 변경(變更)의 예도 볼 수 있었다. 외전된 히브리어 본문 번역에서는 그 결함을 번역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문맥을 바꾸어 조화시키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이나 관용구를 번역할 때 무리한 축자 역으로

의미 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한 LXX나 KJV에 비해 『구역』이 번역에서 더 효과적인 의미 번역을 하였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주석적 문제와 관련된 본문 번역에서는 우리말 번역이 어떤 주석을 따랐는지를 여섯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창세기』 번역과 MT의 창세기 비교 결과는 『창세기』가 MT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세기 이외의 다른 책 번역(예를 들면, 삼상 25:21-22 번역 본문)에서는 『구역』이 MT를 심하게 이탈한 흔적도 보인다. 이것은 본문비평의 결과는 아니다. 이런 현상은 『구역』이 사용한 구약 대본의 본문 전승에 관한 연구가 따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Abstract>

A Study on the Genesis i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with Reference to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Editorial Characteristics, and Textual Decisions

Young Jin Min
(Translation Consultant of United Bible Societies)

The book of Genesis included in the complete OT translation, 『구약전서』(Old Testament in Korean, 1911) was initially published in 1906 as a Scripture portion. Prior to the Genesis translated by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the Anglican Church translated excerpts of Genesis from the 『舊約撮要』(Old Testament Selection), and published the Old Testament Selection in Korean-Chinese diglot format in 1899. The work acknowledged as the first complete translation of

Genesis in Korea is the book of Genesis translated in 1906/1911.

In this paper, the bibliographic data was reviewed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in its editing. Different formatting of chapter and verse, numbering of the chapter and verse numbers, underlining people's names with single vertical lines and place names with double lines, indicating transliterated nouns with vertical swung dashes, paragraphing and others show that it has made very modern editorial arrangements, considering that it is a Scripture published a century ago. Publishing of the entire Bible into three volumes for the Old Testament and one volume for the New Testament appears to reflect the consideration for the page extent and the scarcity of paper during those days. This problem was taken care of soon afterwards, and the need to edit the Old Testament in separate volumes was resolved.

In terms of translation, translators appear to have avoided doing a literal translation where it was inappropriate, subtracted subjects, genitive suffixes, and others to translate into natural Korean expressions. On the contrary, cases of additions where pronouns are changed to actual nouns due to the limitations in the use of pronouns, are often found in the text. Though it appeared very rarely, a case of text alteration was found as well. In the translation of the Hebrew text that was distorted during its transmission, the flaws were not reflected as they are in the translation, but changed its context to harmonize the text. However, compared with the LXX or KJV which does not effectively communicate the meaning due to extensive use of literal translation for expressions of Hebraism or Hebraic idioms, the Ancient Korean Version is highly recognized that it conveys the meaning more effectively. In cases where the text is related to exegetic issues, six sample case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exegesis adopted for the Korean translation.

Comparison of the Korean Genesis(1906/1911) and the

Genesis of the MT' revealed that the Korean Genesis followed the text of MT' almost as it is. In the translation of books other than the Genesis such as the text of First Samuel 25:21-22, there are also places where the Ancient Korean Version diverges from the MT. These are not results from textual criticism. They rather signify the need to carry out an individual study on the textual transmission of OT' source texts adopted for the Ancient Korean Version.

